

백종국

본회 연구위원, 경상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이 강연은 1995년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행한 것이다.

세계 정세의 변동과 기독교인의 인식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역사적 실존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정치를 가만히 보면 '구호의 정치'를 한다, 실질 내용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구호가 만발하고 있는데 도처에 '세계화'라는 단어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호의 정치

정치구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구호는 정책 목표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씨가 자기 모든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식 수준과 직업에 관계없이 깨닫게 해 주는 구호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씨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정치의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해 간다 할 때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게 된 것을 보면 정치구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정치 구호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는 정치적 불신감이 표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한국 창조'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국제화', 그리고 다시 6개월이 못돼서 '세계화'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구호가 내용이 없다는 회의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따르지 않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정치 구호의 교체가 사실상 내려오던 정책의 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신한국 창조'의 77개의 정책 목표 중 23번째는 '업종 전문화'였는데, 이는 대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인한 재벌 중심의 경제가 갖는 문제에 대해 대재벌이 특정 업종을 전문화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분야는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어 경제력을 평준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에 들어 오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삼성의 자동차 진출로, 이는 '업종 전문화'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슬그머니 바꾼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문지상 등에 '자유화', 재벌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자유화'가 세계화의 목표라고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구호의 교체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호를 내세워서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종 전문화' 정책을 폐기한 것은 국민이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슬그머니 구호를 바꿔가면서 국가 정책의 실질적 내용까지 교체해 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체제의 변동과 한국의 대안, 이 변동하는 국제체제 내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는 교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최근에 갑자기 '한국 교회와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어떠한 복음적 내용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현격하게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정치구

호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편승해서 뭔가 한 번 해보자 하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총신대에 계신 여러분은 계시받은 바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 정치 변동에 대한 학문적인 습득보다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한국 교회의 역사적 소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심각한 비극에 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태도와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서 철학개론을 듣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하기 어렵듯이 생각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바른 소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론을 먼저 강의 해야겠습니다.

2대 비극을 피하자

저는 후치의 비극과 독단의 비극이라는 2대 비극론을 얘기합니다. 첫째 후치의 비극은 유학 직전에 신문칼럼에서 읽고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글은 소아과 의사가 쓴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부부가 다 죽게 된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진찰해 보니, 간디스토마였습니다. 민물고기 등을 날 것으로 먹을 때나 걸리는 간디스토마에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걸릴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본 결과 아이를 죽도록 사랑하는 아이의 할머니가 홍역에 걸린 아이를 위해 옆집 아주머니의 조언을 따라 추운 겨울 산골짜기를 헤매며 구해온 생 가재즙을 먹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홍역은 나왔지만 얼마 후에 다시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간디스토마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사랑이 이 아이를 죽일 뻔한 셈입니다. 우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는 일이 가정을, 교회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경우 그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가 잡으러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라도 했더라면 상황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아들이 그 할머니를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 말만 듣고 다짜고짜 먹여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남은 모르는 것이 나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신학원에 들어오면 과거에 무엇을 전공했듯이 그것은 모두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고 신학만 잔뜩 머릿속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인간적으로 가졌던 것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학부에서 배웠던 지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몽꽁그러서 난 그것 모르니까 내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단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귀국해서 신문에서 읽은 콩트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물에 빠졌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줄을 던져도 '나는 줄에 의지하지 않겠다', 모터보트가 지나가도 '나는 모터보트에 의지하지 않겠다', 헬리콥터에서 줄사다리를 던져도 '나는 현대 과학에 의지하지 않겠다' 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천당에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나이도 젊고 할 일도 많고 처 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일찍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측은한 얼굴로 '내가 행인도 보내주고 모터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까지 보내 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했어야 한단 말이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을 여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서 잡아 내시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독단의 위험 천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데올로기라는데서 우리는 이런 독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세계를 그것으로 설명하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있던 것으로

세계가 이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특징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독단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곤 하지만 독단의 비극에 빠져 있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 패러다임

지금부터는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전공은 아니지만 논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바를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리스 멜로콕뜨라는 유명한 프랑스 실존 철학자가 보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 지식의 대부분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이 매우 미완적이라는 것이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 줍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눈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 때문에 일어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듯이 착시현상이나 선글라스를 썼을 때의 색깔에 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보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미완적이라는 것은 그 결과인 지식도 미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구호의 정치를 조심하자고 한 것은 구호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하면 모든 것을 '세계화'로 도배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요컨대 따라갈 지의 여부를 생각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떠든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성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독단의 비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혼동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한 역사적 시점에서 용인되는 과학적 인식의 틀이라는 것으로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화학사를 연구하다가 과학사로 나아가고 그 과학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은 절대적 진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쿤에 의하면 절대적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지 절대적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시점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동설과 천동설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내용을 빼고 나면 지동설과 천동설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두 개 다 진실일 수 있습니다만 어느 관점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그 패러다임의 위험성에 좌우됩니다. 또 그 패러다임의 사회성에 좌우됩니다. 이 말은 그 패러다임이 진실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갈릴레오 이전에 지동설을 이론으로 잠시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상당히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피렌체 대공이 로마 교황권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갈릴레오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종교개혁 당시 루터를 보호했던 작센왕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를 비밀리에 호위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했던 그의 행동은 독일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루터의 논리야말로 이탈리아 교황의 손에서 독일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어떤 패러다임이 발달하고 성공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 가는 것은 그 패러다임이 효율적이어서만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이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과학이라는 것을 정의한 것을 인용하면 ‘역사적으로 보다 신빙성있는 진실을 얻기 위해서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틀 안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정치학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신앙과 과학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과학적

태도 자체는 지혜와 계시에 비하면 정말 초등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무한한 것이고 과학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보는 것과 아는 것으로 가지는 엄청난 과학적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무한한 계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들이 보는 것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 과학적 진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는 진리와 가깝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이 있고 그것이 과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철학에서는 이것을 통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를 모두 마이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같은 신앙의 유무 이전에 있는 것으로 여기에 과학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보다 더 강화시키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그냥 몰살시키고 신앙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몰지성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개인의 주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 주시니 나는 과학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독단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변동

우리가 보다 신빙성 있는 역사적 진실을 알려면 주어진 역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제가 국제 질서의 변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고 한국 교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 질서의 변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945년을 분기점으로 그 독특한 성

격이 형성되어 오늘날 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미국의 패권' 혹은 미국의 평화, Pax America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체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의 힘으로 구성되고 발전되어 온 체제인데 그것에 일정한 변동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 패권의 요인

먼저 미국 전후의 패권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살펴봅시다. 미국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대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특정 해에는 미국이 세계 GNP의 25%를 차지하기 까지 했던 강대국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왔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Protestantism이라는 국가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Protestant의 정신, 정치력, 집단이 핵심이 되어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정신이 깔려 있고 거기에 복음적 원칙이 흘러야지 그저 추상적인 신학만을 익히고 삶에 대한 과학적 사고가 결여될 때 삶이 이원화되기 쉽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말하는 Protestantism도 그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Protestant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세력, 사고방식들이 미국을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숫자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미국의 주력으로 미국을 이끌어왔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민중추위의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사적인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유럽에서 쫓겨나 유럽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모아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미국은 연방제를 만들어 냈는데 이는 초기 미국의 인구 문제 등의 중요한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상도의 많은 인구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박정희씨가 지역감정을 조장한 일을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원은 인구제로 선출

하고 상원은 각 주 대표 두사람으로 정하고 일반적인 것은 하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상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큰 장점은 New Frontier, 개척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땅이 좁으면 인구가 늘어 남에 따라 갈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미국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하나 더 들자면 미국의 중농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초기 미국의 정책은 자영농에 입각한 시민들의 미국의 주류가 되는 중농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대전과 미국 경제

그런데 이 점만 가지고는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미국과 비슷한 환경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차이, 바로 그 점이 1945년 이후의 양상을 만들어 낸 비밀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유럽은 세계의 양차 대전의 갈등에 있었지만 미국은 그 갈등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물론 참전은 했지만 초기에는 참전치 않다가 어느 정도 싸움이 진행된 후에야 참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데 미국은 대서양이라는 대양으로 유럽과 분리되어서 전선이 미국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한 이외에는 미국 본토가 전장이 된 일이 없습니다. 대신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전쟁특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 당사국은 자체의 식량 등을 생산할 여력이 없으므로 금은 등으로 비전쟁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해야 하지만 그나마 전쟁이 지속된다보면 빛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비 부채라고 하는 것인데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40억불, 영국은 47억불, 여타 국가들은 32억불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그 당시로 119억불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세계의 모든 땅이

미국 손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첫째 금은 한동안 야적시켜 놓고 지킬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1, 2차 대전 사이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많은 조약을 맺었는데 그 명목이 어찌 됐든지 그 실지 내용은 영국이 대부분의 식민지를 할값으로 미국에 팔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사실과 그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태도라는 것은 그 진실을 분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전쟁특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또 하나의 예는 2차 대전시 잿더미가 되었던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대국이 되는 계기가 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 조달 물자로 50억불 상당의 수입을 올렸고 55년에는 이미 전쟁으로 인한 파괴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도 월남전을 전후로 그 진지 공사 등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것이 컸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보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전쟁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 CIA가 최근 추정한 것에 의하면 만약 한국전쟁이 작년에 발생했다면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약 1조 달러정도의 손실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세계경영

1945년 이후 전후 처리를 해야 했는데 승전을 했다 해도 이미 진 빛을 값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패전국에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값을 능력이 없자 1차 대전후 프랑스의 루르 지방 점령 같은 사건이 나오고 이에 따라 히틀러의 등장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대전이 생기고 이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포스타 회담, 알타 회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와 함께 깨달은 것은 1차 대전과 같이 패전국들의 경제 상태가 미약한 상황이 계속 되면 대공황과 같은 흑자 도산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차 대전 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는 정치적 구상인데 그것은 냉전 체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자 적을 만들어 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이 소련입니다. 소련에 대한 적대 분위기를 만들고 소련을 heartland로 삼고 주변 국가들을 위성국으로 삼아 이것이 확장되지 않도록 포위하는 roll-back 혹은 containment라고 부르는 전략을 펴고 실제로 군사력을 배치했는데 그것을 NATO와 한미 방위조약, 미일 방위조약 등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들에는 조약 해당 국가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이 조약 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한다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방편이 미군의 주둔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구상입니다. 사실 정치적 구상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방위와 미국의 이익에 종사하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상 가운데 1차 대전 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관을 제공하되 이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1944년의 브랜트우드 협정이고 그 조약 내의 기금이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IMF가 그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세계은행 IBRD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ADB가 있는데 여기서 파견된 고문관이 우리 나라의 고속도로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노동과 결합해서 자본이 되어 하므로 돈을 빌려주되 금이 아닌 달러로 처리했습니다. 달러의 금 태환성을 세우고 달러를 통용하게 함으로 달러가 전후 경제의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이 전후 원조 중 가장 컸던 것이 '마셜 플랜'이었습니다. 이런 절묘하고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미국을 중심으로한 체제가 45년부터 7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냉전체제의 붕괴

71년 이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역사상 다른 대립구조와는 달리 어떤 큰 전쟁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소련 측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반면에는 미국도 상대적으로 붕괴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미국 패권의 붕괴는 미국의 냉전적 과소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경제와 정치의 두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은 발권력에 기초해서 상대국가의 자신의 군대를 심어 넣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파견은 미국을 대표한 것으로 국가의 위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축통화의 적자 편성'이라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즉 타국에 차관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통용될 양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재정적자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미국민들에게 소비가 미덕인양 여기게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끝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해상의 중요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일본의 재무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주도의 냉전구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열대우림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에 유통되는 돈이 1969년에는 780억 달러, 1977년에는 3,190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 돈은 미국이 금으로 바꿔 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 독일은 착실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달러의 유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자 다른 국가들은 달러로 금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므로 닉슨 독트린을 통해 달러의 금 교환을 금하고 달러로 파견된 미군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국 방위는 자국이 감당하도록 선언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미국은 무너지고 1950년대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질 수는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동구권의 붕괴가 더해졌습니다. 동구권은 그 자체 세력이 자본주의보다는 처음부터 작은 형태였고 소련이 여타 국가를 먹여살려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자본국가와 달리 소련은 화폐에 의한 무역이 아닌 사회주의적 형제애에 의한 것이어서 소련의 입장에서선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주의 체제의 독특성 때문에 비효율

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 비효율성이란 자본주의 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군비 경쟁에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자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1969년에 미국은 814억불 소련은 898억불을 지출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GNP는 미국의 반 수준이었습니다. 동구권에서는 소련보다 동맹국, 폴란드 등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증산층이 늘어나고 그 증산층의 반발을 막기 위해 소련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동맹국들의 소련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데탕트 전략'을 펴서 현존 국경선의 유지와 인권 및 기타 인간의 평등한 가치를 서로 보장해 준다는 이 두 가지의 조건만으로 화해의 무드를 폈습니다. 이것이 헬싱키 회담의 핵심입니다. 소련은 2차 대전을 통해 얻은 발트 3국 등의 영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환영했으나 들쭉 조건에 의해 동구권의 급속한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국제체제의 변동

이런 것이 국제 체제를 실용주의적 국제체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용주의적 국제체제의 특징은 첫째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질적 국익을 위해 경쟁한다는 것과 둘째, 자유나 인권 등에 대한 합의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것, 셋째 이런 체제 속에서 국제 금융체제의 위험부담은 훨씬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멕시코 등의 화폐사태 등이 좋은 예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신 다국적주의, 서로 다른 국적을 섞어가면서 국제적 협력을 넓혀가는 것인데 사적 기업들이 커짐에 따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전략적 무역정책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증가시키고자 하는 무역정책이 지배적이 될 것입니다. 자유 무역정책에 따라 시장 메카니즘이 지시하는 대로 놔두는 것

이 아니라 그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하면서 자국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환경문제입니다. 이는 아주 급박한 문제입니다. 2100년에는 해수면이 65 cm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해양국가들은 이것이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서로의 이익이 얽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의 하나입니다.

국제 체제의 흐름과 그 흐름의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몇가지 역사적 특징만이 가미될 뿐인데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 교양으로서 국제체제의 변동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항상 유념하면서 좋은 목회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